

#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 축승회

## 참부모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책임 다 하는 자랑스러운 자녀 될 것” 축원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 축승회가 전역 7월 18일 (양 8.31) 천정궁 2층 채플실에서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참가정, 특명총사, 대륙회장을 비롯한 통일가 세계 지도자, 섭리기관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천주성화 3주년 향한 정성과 수고 치하

참부모님께서 이날 축승회 말씀에서 “여러분 그동안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를)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많이 수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아버님께 기억되는 효자, 효녀, 충신이 되기 위해서는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축복가정들이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제 아버님께 약속드린 겁니다.”라고 격려해 주셨다.

이어 “오늘은 축승회니까 노래할까요?”라고 물으셨는데 해외 지도자들이 “Yes, Mother!”라고 답했다. 참어머님께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Yes, Mother!’가 아니라 ‘예, 어머님!’이라고 말해야 돼요.”라며 미소 지으며 한국어 공부를 강조하셨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참부모님께서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오늘은 무척 마음이 가볍고 행복합니다. 보고에도 나왔듯이 3,500명 이상의 청년 학생, 미래 지도자들의 열기를 내가 직접 봤습니다. 특별히 탑건 수련을 받은 200여 명, 미래의 중심적인 본류를 타고 세계섭리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감들을 볼 때 무척 희망적입니다.”라며 통일가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셨다.

끝으로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의 꿈이요 천지인참부모의 꿈, 그것은 70억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참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여러분



1. 말씀하시는 참어머님  
2. 승리축하케이크를 커팅하시는 참어머님  
3. '사랑해 당신을(아버님)'을 부르시는 참어머님과 대표 지도자들  
4. 승리보고를 하는 유경석 한국회장  
5. 승리보고를 하는 송용천 일본총회장  
6. 승리보고를 하는 조성일 세계본부 사무총장  
7.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 축승회 전경



과 지도자들이 기필코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이 다하는 날까지 ‘다 이루었다. 책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축원하며 당부했다.

말씀을 마치신 참어머님께서 “오늘 행사에서 보고했던 사람들 나와요. 같이 노래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예요.”라며 7명의 대표지도자들과 함께 ‘사랑해 아버님’을 부르셨다.

### 각 섭리기관 천주성화 3주년 승리보고

이날 축승회는 천주성화 3주년 조직위원회 송용천 공동실행위원장의 사회로 참부모님 입장, 케이크 커팅, 꽃다발 봉정, 경배, 유경석 공동실행위원장의 보고기도, 예물봉정, 섭리기관 승리보고, 참부모님 말씀, 안준석 공동실행위원장 선창의 억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경석 공동실행위원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선학평화상, World Summit 2015, 피스로드 2015 대장

정 등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로 거행된 주요 행사들의 섭리적 의의를 하늘 앞에 보고한 뒤, “모든 승리의 배경에는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참부모님의 승리적 업적과 뜻을 오롯이 드러내기 위한 통일가 식구들의 구슬땀 어린 정성과 실천이 있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만이 아시고 하늘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 어머님의 눈물과 정성 그리고 섭리적 경륜이 계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며 ‘중단 없는 전진’으로 섭리를 이끌어 오시며 밝고 맑은 빛을 비춰주신 참어머님께 깊은 감사를 올렸다.

이어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각 대륙에서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봉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협회, 일본협회, 아시아대륙, 북미대륙, 중미대륙, 남미대륙, 유럽대륙, 중동대륙, 오세아니아대륙, 아프리카대륙, 동북대륙, 중화대륙 순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봉정하며 하늘에 기쁨과 영광을 올렸다. 섭리기관보고는 시간 관계상 7개 주요 섭리기관이 대표로 보고했다. 세계본부(조성일 사무총장), 한국협회(유경석 회장), 일본협회(송용천 일본총회장), 선학평화상 및 정상회의(토마스 월시 UPF세계회장), 피스로드(손병호 회장), 참부모경 출판기념식(김석병 원장), 언론활동(안호열 재단본부장)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한편 송용천 일본총회장은 활동보고를 마무리하며 “지난 8월 26일 일본정부로부터 종교법인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종교명칭을 변경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기쁨을 나누었다.

이외에도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천주청평수련원, 월드CARP, 한국CARP, 세계평화무도연합, 선문대학교 문선명연구원, 통일사상연구원,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평화터널재단, 세계일보, 자원봉사 애원 등이 주최하는 기념행사가 기획·진행됐다. <기사제공: 기획홍보국>

# 천주성화 3주년 기념 참부모경 출판기념식 개최

## 참부모님 “3대 경전은 전체섭리의 진수이며, 가감할 수 없는 중심”임을 강조



1. 말씀하시는 참어머님
2. 참부모님과 참부모경 봉정한 문선진 세계회장과 박인섭 세계부회장 내외
3. 참부모님과 참부모경을 하사 받은 13개 대륙대표들
4. 참부모경 출판기념식 전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천일국경전편찬위원회 주최 천주성화 3주년 기념 ‘참부모경 출판기념식’이 천력 7월 19일(양 9.1) 참부모님을 모시고 문선진 가정연합 세계회장 내외를 비롯한 국내외 지도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청평수련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경전의 중요성 강조, 말씀편찬위원회 노고 치하

참부모님께서 『참부모경』 출판기념식 말씀에서 먼저 “천주성화 3주기 기념식에서 아버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제 지상의 짐은 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영원한 본향원에서 하늘부모님께 위로와 송영이 되시며 자유로워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라며 기념식 말씀을 되새겨주셨다.

이어 “오늘 이렇게 천일국 3대 경전의 마지막 『참부모경』을 3개 국어로 완성시킨 것은 대단히 축하할 일이며, 감사한 날입니다. 『참부모경』은 물론이거니와 3대 경전 편찬에 있어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편찬위원회의 위원들과 교수 그리고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라고 격려해 주셨다.

참부모님께서 “하늘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하늘부모님의 목적은 참부모님의 목적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말씀은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 같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그 시대에 맞게 조금 다르게 하실 수 있지만 중심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전이 있지만 ‘천일국 3대 경전’이야말로 부모님의 전체 섭리역사의 진수입니다. 엑기스입니다. 더 가감할 수 없는 완벽한 보석입니다.”라고 강조하셨다.

끝으로 참부모님께서 “천주성화 이후 3년 동안 이 일에 전력투구한 데에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품고자 하시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심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3대 경전이라는 전무후무한 보석을 가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3면에 계속)



1. 참부모경을 봉정하고 있는 문선진 세계회장  
2. 기념사를 하고 있는 김영휘 편찬위원장  
3. 보고기도를 하고 있는 유경석 한국회장  
4. 말씀훈독을 하고 있는 정원주 수석보좌관  
5.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김석병 원장

6. 발간사를 하고 있는 이재석 편찬부위원장  
7. 축사를 하고 있는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8. 말씀하시는 참여어님과 참석한 전 세계 지도자들  
9. 참부모경 출판기념 축하 떡 커팅 장면

### 3대 경전의 역사적·섭리적 가치

이날 출판기념회는 조광명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유경석 한국회장의 보고기도, 정원주 수석보좌관의 말씀훈독, 김영휘 천일국경전편찬위원장의 기념사, 김석병 역사편찬위원회 원장의 경과보고, 이재석 부위원장의 발간사,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의 축사, 꽃다발 봉정, 문선진 세계회장 내외의 『참부모경』 봉정, 손대오·타일러 헨드릭스 회장의 기념품 봉정, 『참부모경』 하사(13개 대륙), 참부모님 말씀, 축하 떡 커팅, 송용천 일본총회장의 승리제의, 오찬, 축하공연, 김기훈 북미대륙회장 선창의 역만세 삼창, 폐회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경석 회장은 보고기도에서 “2013년 6월 10일, 『천성경』과 『평화경』이 참부모님 앞에 봉헌되어졌고 그로부터 2년여의 깊은 정성과 각고(刻苦) 끝에 오늘 이렇게 『참부모경』에 대한 출판기념식과 봉정의 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 성탄 이후 섭리를 최종 완성하시기까지 경륜하신 1만5천여 섭리적 주요 사건들은 그 하나하나가 용서와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참부모님의 삶이 오롯이 증거된 참부모경을 통해 통일가전 식구와 75억 인류 모두에게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게 이끌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이어 말씀훈독에서 정원주 수석보좌관은 『참부모경』 제12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과 여성시대 섭리’ 말씀 중 발췌한 부분을 훈독했다. 김영휘 편찬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이 식전은 참부모님의 전통과 위

업을 전승하기 위한 첫 작업이었던 천일국 경전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다. 『참부모경』은 복귀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천상과 지상에 선포하신 7백여 권에 달하는 말씀 중 보석 같은 핵심을 뽑아 일목요연하게 담아낸, 참부모님께서 남기신 피와 땀과 눈물의 최종 보고서다.”라며 『참부모경』의 역사적·섭리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천일국 경전이 완간되면서 인류에게 대대로 전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모두가 참부모님의 길을 뒤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섭리사적 자서전, 천일국민의 길잡이

김석병 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참부모님의 특별한 지시와 관심 그리고 사랑 속에서 『참부모경』이 2년 7개월만에 편찬되었다. 『참부모경』은 섭리사적인 자서전이며 말씀과 지문, 실록으로 구성된 천일국민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뒤, 천일국 경전의 편찬원칙, 편찬과정, 번역과정 등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이재석 편찬부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참부모경』은 참부모님의 말씀과 생애를 수록한 경전으로 전 인류에게 하사하시는 위대한 유산이다. 참부모님께서 복귀의 길을 개척하고 승리하신 증언서로서 『참부모경』은 인류가 가야할 삶의 전형을 밝히고 있다. 또한 『참부모경』은 기원절이야말로

복귀섭리역사를 종결하고 실제 천일국 출발의 기원이 되는 날로서 참부모님의 최고·최대의 업적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은 축사에서 “영원히 전승할 귀한 말씀과 업적을 담은 ‘참부모경 출판기념식’을 갖게 되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대역사를 발상하고 결단하신 참여어님과 그 뜻을 받들어 애쓴 김영휘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재님 양위분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셨으며 이 순간에도 하나 되어 섭리를 경륜해 나가신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참된 아들딸로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참부모님께서 문선진 세계회장과 박인섭 세계부회장 내외로부터 『참부모경』을 봉정 받으셨고, 손대오 부위원장과 타일러 헨드릭스 영어번역위원장으로부터 기념품을 봉정 받으셨다. 이어 참부모님께서 한국, 일본, 북미, 중미, 남미, 아시아, 중화권, 중동, 유럽, 동북,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회장에게 『참부모경』을 하사해 주셨다. 오찬은 송용천 일본총회장의 승리제의로 시작됐다. 오찬 중에는 실내악단의 피아노 5중주, 솔리스트 아카펠라그룹의 공연, 뮤지컬 ‘그 말씀 보석으로 빛나라’ 등의 경축공연이 진행됐다. 경축공연 후 참여어님께서 ‘사랑해 당신을(아버님)’을 부르시며 참석자들과 『참부모경』 편찬의 기쁨을 나누는 화동의 시간을 가지셨다. 이날 행사는 김기훈 북미대륙회장 선창의 역만세 삼창으로 마무리되었다. (기사제공: 기획홍보국)

# 참부모님 주관,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Vision 2020 출정식 열려

## ‘국가복귀 위한 전력투구’ 당부, 천일국 지도자 결의문 봉정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Vision 2020 출정식’이 천력 7월 22일(양 9.4) 오전 11시 참부모님을 모시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진 세계회장과 박인섭 세계부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문연아 세계회장, 문훈숙 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13개 대륙회장과 특명총사 그리고 120개 선교국 대표지도자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청평수련원 대성전에서 개최됐다.

### 천일국 지도자가 담당해야 할 국가복귀의 사명

참부모님께서 이날 출정식 말씀에서 먼저 “여러분은 천일국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듣고 내가 믿어보려고 합니다.”라며 전 세계에서 온 천일국 지도자들을 격려해 주셨다.

참부모님께서 역사상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나온 유럽대륙에 대한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뒤, 평범한 시골소녀로 16세 때 신의 음성을 듣고 영국과의 전쟁에서 조국인 프랑스를 구하고 황제를 옹립한 영웅인 잔 다르크의 일화를 소개하시며 “Vision 2020을 향한 여러분의 결심이 잔 다르크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이요 참부모님의 소망은 인류를 참자녀로 품는 것입니다. 잔 다르크는 나라를 구했지만 여러분은 세계를 구하고 하늘부모님의 꿈과 참부모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참부모님께서 “타락한 세계의 흔적이 없는, 참부모로 말미암아 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본향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님과 함께 역사적이며 세계사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미래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숭배하는 참효자·참효녀·참충신의 자리, 나아가 참주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천일국의 지도자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셨다.

또한 참부모님께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남북미 대륙의 선교조직과 책임자의 사명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시며 특히, 남미대륙은 청년들이 국가복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운동과 CARP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하셨다.

이어 “니카라과의 섬리가 중요합니다. 니카라과는 (중남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기에 아버님께서 덴버리 고난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니카라과는 부모님께 빛을 쬐고, 감사의 뜻으로 이번에 그 나라 수도에 있는 마나과 국립대학교에서 인문학 명예박사학위를 봉정해왔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섬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며 국가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끝으로 참어머님께서 “전 세계 대륙회장과 (특명)총사 그리고 특사들은 각자 맡은 나라의 복귀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Vision 2020을 승리하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효자·충신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해주셨다. (5면에서 계속)



1. 출정식에서 말씀하시는 참어머님  
 2. 피스로드 2015 121개국 중주승리 감사패 봉정  
 3.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결의문을 봉독하는 장면  
 4. 참어머님을 모시고 Vision 2020 승리를 결의하고 있는 천일국 지도자들



## 피스로드 121개국 종주승리 감사패 봉정

이날 행사는 가정연합 조성일 세계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김기훈 북미대륙회장의 보고기도, 참부모님 입장, 경배, 박노희·문난영 특명총사 내외의 꽃다발 봉정, 문선진 세계회장 내외의 피스로드 2015 121개국 종주승리 감사패 봉정, 총회 경과보고, 전체 참석자를 대표한 특명총사와 대륙회장의 결의문 봉독 및 봉정, 참부모님 말씀, 광고, 송용천 일본총회장 선창의 억만세 사창, 폐회선언,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기훈 북미대륙회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하늘부모님과 사랑하는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출정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어머님께서 기필코 지상섭리는 당신이 당대에 완성시키시겠다는 결의로 70억 인류구원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이러한 참어머님의 심정을 상속받아 Vision 2020 승리를 다짐하며 천일국 지도자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

한편, 가정연합 문선진 세계회장과 박인섭 세계부회장 내외는 121개국 종주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참부모님의 은사에 감사하며 ‘121개국 종주승리 감사패’를 참부모님께 봉정해 올렸다. 이번 ‘피스로드 2015’는 참어머님께서 하사하신 피스로드 깃발을 들고 121개국의 역사적인 통일대장정을 완주했으며, 각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와 30만 세계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결의문 봉정

세계본부를 대표해 조성일 사무총장이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의 경과보고를 했다. 조 사무총장은 “참부모님의 지시에 의해 ‘천지인참부모님의 실제말씀을 상속받아 천일국의 참된 지도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특별총회가 기획·진행되었다.”면서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확립한 토대 위에 천주성화 3주년의 의미와 기원절 이후의 섭리적 경륜을 깊이 이해하고 천일국 실제화를 위한 Vision 2020 전략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했다.

이어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천주성화 3주년의 의미와 가치 재고를 통한 ‘한 방향’, Vision 2020 승리라는 ‘한 목표’, 천일국 지도자 화합과 결속을 통한 ‘한 마음’이라는 모토로 문선진 세계회장의 개회사, 여섯 강좌의 특별강의, 화합봉헌 ‘화합통일 체육대회’, 찬양봉헌 ‘찬양으로 하나된 우리’, 정성봉헌 ‘촛불기도회’, 세계본부전략 공유, 특별총회 출정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음을 보고했다.

한편, 전체 참석자를 대표한 13개 대륙회장과 특명총사들은 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2015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결의문’을 봉독하고 봉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늘섭리의 중심국가 지도자인 유경석 한국회장, 송용천 일본총회장, 김기훈 북미대륙회장이 ‘승리하신 천지인참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중심, 한 마음, 한 방향, 한 목표”로 나아가 천일국 실제화를 위한 VISION 2020을 성취할 것을 다짐한다.’는 결의문을 봉독했다.

송용천 일본총회장 선창의 억만세 사창 후에 참부모님께서 역사편찬 위원회에서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의 영상을 담아 제작한 USB를 보여주시며 ‘각 나라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식구와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할 것’을 당부하셨다.☺

## 2015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결의문

전 세계에서 모인 우리 천일국 지도자들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2015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를 통해, 승리하신 천지인참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중심, 한 마음, 한 방향, 한 목표”로 나아가 천일국 실제화를 위한 VISION 2020을 성취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천일국 지도자인 우리는 천지인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 천일국이 지향하는 참된 지도자의 길을 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이다. 하나인 우리는 천지인참부모님을 절대 중심에 모시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충효의 도리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천일국 지도자인 우리는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비원리적 행동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않으며, 천일국 경전과 천일국 헌법정신을 준수하며 전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천일국 지도자인 우리는 천지인참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2020년까지 실제적 국가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천일국 3년 천력 7월 22일 천일국 지도자 일동



1. 꽃다발을 봉정 받으시는 참어머님  
 2. 뜨거운 환영 속에 입장하고 계시는 참어머님  
 3. Vision 2020 승리를 결의하는 천일국 청년특사와 천주평화사관학교 생도  
 4. 보고기도를 하고 있는 김기훈 북미대륙회장  
 5. 사회를 하고 있는 조성일 세계본부 사무총장  
 6.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Vision 2020 출정식 전경



## 문선진 세계회장 ‘2015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개최식 개회사



‘2015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가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천력 7월 20일부터 22일까지(양 9.2~4)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진 세계회장과 박인섭 세계부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문연아 세계회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120개국에서 온 55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날 개회식, 문선진 세계회장의 개회사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한다.

### 참부모님의 깊은 심정과 섭리적 경륜

천일국 지도자 총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랑하는 참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영원한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부모님 양위분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과 감격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천주성화 3주년을 맞이해서 참아버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참어머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보살핌, 헌신, 이해와 참아버님과의 깊은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부모님은 절대로 하나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참부모이십니다!

참아버님의 성화 이후 3년 기간 동안, 참어머님께서는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을 대면하면서 엄청난 하늘부모님의 섭리의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통일운동을 애도와 혼란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모든 육신과 정신의 아픔을 극복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어떤 슬픔도 보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5%의 책임분담을 완성해서 참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참어머님은 확고부동한 결의로 하늘부모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흔들림 없이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셨습니다. Vision 2020을 통해 참어머님은 전 세계 축복중심가정들과 모든 세대들에게 지속적인 영감과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께서는 70억 인류를 향해 무한한 사랑과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참부모님을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움과 아픔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져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대가족의 이상을 향해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참어머님을 섬기며 일체가 되어야 하고, 참아버님의 평화·축복·사랑의 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부모님의 효자·효녀인 우리들이 담당해야 할 세 가지 책임분담인 것입니다.

### 첫째, 참어머님을 섬기며 일체가 되어 나가야

지도자 여러분! 참어머님의 생애노정을 참아버님의 생애노정의 맥락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어머님이 참아버님의 영원한 동반자이심을 보다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어머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된 자리를 부정하게 되면 동시에 절대적 참아버님의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부모 가운데 한 분이라도 부정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참된 아들딸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참된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핏줄도 사랑도 이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축복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참된 효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면서 지금 지상에 계신 참어머님을 섬기며 일체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랑의 배움터 안에 몸부림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게 될 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앞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을 놓고 어려움과 의견의 차이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의견의 차이가 분열과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때 우리는 참부모님의 지도에 따라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목표보다 전체의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게 되면 개인과 단체 그리고 통일이 전체가 의견차에 대한 해결 규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참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참사랑은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곳에 나타날 수 없고, 가정과 참사랑의 가치가 훼손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분쟁과 분열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참어머님과 일체를 이루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참사랑, 평화, 용서를 추구하며 분쟁을 극복하고 일체를 추구해야 됩니다. (7면에서 계속)

## 둘째, 참아버님의 평화·축복·사랑의 유산 계승·발전시켜야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아버님의 평화·축복·사랑의 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축복과 사랑의 불꽃으로 전 세계를 밝혀주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열정, 에너지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투입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주신 그 성스러운 불꽃을 가지고 전도와 위하는 삶을 실천하여 그 불꽃이 더 밝게 더 넓게 빛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교 일화들은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대일 전도 방식은 교회 성장에 있어 항상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한편, 현 세대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과 우리의 세계적인 운동에 다른 이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전도, 홍보, 공동체 구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SNS를 활용해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가의 기반을 더 넓게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부모님과 우리의 공동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핵심 정체성에 충실하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종교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통일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생명의 원천은 참부모님이시며, 우리의 가장 귀한 전통은 참부모님의 말씀과 훈독회입니다. 참부모님의 전통을 중심으

로 참사랑의 문화를 창조하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의 평화·축복·사랑의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참부모님의 빛과 함께 빛날 것입니다.

## 셋째, 지속적인 통일운동 전개로 성공적 결실 맺어야

세 번째로 우리는 지속적인 통일운동 전개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섭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 많은 섭리기관과 기업체를 세우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결코 종교의 울타리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각 분야에서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이 목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며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특히, 섭리기관 중의 비영리단체들은 그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방식, 자금조달, 인적자원관리, 홍보, 기획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어머님께서 이루신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천일국 헌법과 경전을 완성하시고 천일국 최고위원회와 같은 천일국의 기초가 될 조직적인 틀을 구축하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천일국 정착을 위한 다른 분야의 일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참어머님의 현명한 리더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맡은 책임과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한 가정으로서 다 함께 통일이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참부모님께서 닦아놓으신

기반 위에 지속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참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 우리의 핵심적인 장점을 기억해야

참부모님께서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평생 끝없는 열정과 헌신을 투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참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향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완벽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절대적으로 하늘부모님과 하나 되신 영원하고 신성하신 존재이십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지상에서 일생을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구원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셨고, 하늘의 성업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입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이러한 열정은 참사랑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참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둡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실천적 참사랑입니다.

참생명의 본질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을 상속받은 우리들은 참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Vision 2020과 천일국 실체화를 실현시킵시다. 참부모님을 모시고 세계 가정 공동체와 함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천상에 계신 참아버님과 지상에 계신 참어머님께서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진심어린 노력들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사제공: 세계본부)



1. 꽃다발을 봉정받고 있는 문선진 세계회장장과 박인섭 세계부회장  
2.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에 참석한 문연아 세계회장장과 정원주 수석보좌관  
3. 문선진 세계회장장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천일국지도자들  
4. 2015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개회식 전경



# 천주성화 3주년 기념 '2015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개최

## “천지인 참부모님의 실제말씀을 상속받아 천일국의 참된 지도자가 되자!”

‘2015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이하 특별총회)’가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천력 7월 19일부터 22일까지(양 9.1~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문선진 세계회장과 박인섭 세계부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문연아 세계회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120개국에서 온 55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진행됐다.

특별총회는 ‘천지인참부모님의 실제말씀을 상속받아 천일국의 참된 지도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의 섭리적 의미를 되새기고 천지인참부모의 위상과 가치를 정립하며, 천일국 지도자들이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결속하여 실제 천일국 창건을 향한 Vision 2020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 통일가 세 가지 책임분담 완수 당부

첫날 개회식은 조성일 세계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천일국가 제창, 석준호 선교재단 이사장의 보고기도, 안준석 세계부회장의 환영사, 꽃다발 봉정, 문선진 세계회장의 말씀, 조성일 사무총장의 총회의 취지 및 일정 소개, 오야마다 히데오 특명총사 선창의 역만세 삼창, 폐회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선진 세계회장은 개회식 말씀에서 ‘참부모님의 인류를 향한 깊은 심정과 실제 천일국 완성을 위한 섭리적 경륜’에 대해 설명한 뒤, “우리는 첫째 참어머님을 섬기며 일체가 되어 나가야 하고, 둘째 참아버님의 평화·축복·사랑의 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셋째 지속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참부모님의 효자·효녀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책임분담을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석준호 이사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실제로서 참부모님 양위분께서 최종 일체를 이루시고, 천일국 헌법의 반포와 3대 경전의 편찬을 통해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고 실제 천일국을 완성하는 위대한 여정에 있어 저희들이 신종족메시아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안준석 세계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참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를

하루빨리 참자녀의 자리로 찾아 세우고 천일국 실제화를 이루어야 할 때, 천일국 지도자들을 특별총회에 불러 모아 주시고 새롭게 결의하고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며 참어머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참석 지도자들을 맞이했다.

### 참부모님 위상 확립과 섭리적 인식 및 비전 공유

특별총회에서는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 ‘천주성화 3주년의 의미와 기원절 이후 섭리 경륜’, ‘천일국 실제화를 위한 Vision 2020 전략’ 등을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김영휘 천의원장은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1)’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천지인참부모님은 하늘부모님께서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로 창조하신 독생자와 독생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후 다시 보내신 인류의 재림메시아·구세주·참부모이시다. 또한 천지인참부모님은 하늘부모님과 일체된 인류의 조상이시다.”라고 밝힌 뒤, “지상과 영계의 모든 타락인간은 축복결혼을 통해 천지인참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지상과 영계의 모든 인류는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형제자매들이며, 천일국 국민으로서 천지인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단계별로 천일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석 회장은 ‘천주성화 3주년의 의미와 기원절 이후 섭리 경륜’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은 시묘정성이 끝나는 기간이다. 참부모의 자녀인 인류가 시묘정성을 드러야 하지만, 참어머님께서 인류를 대신한 입장에서 시묘정성을 대신 하시며 인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천일국 시대는 하늘부모님을 섬기는 시의(侍義)시대이고, 하늘부모님의 실제이신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섭리를 경륜하시는 시대다. 기원절은 천지인참부모님의 새로운 시대경륜의 출발이며, 이후는 천일국이 실제화되는 시대다.”라고 현 시대를 섭리적으로 규정한 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과 함께 인류의 참부모님으로서 천일국을 개국해 주셨으며,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과 함께 천일국의 선두에 서서서 실제화해 나가고 계신다. 이러한 때를 맞아 통일가의 축복가정과 식구들은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을 기필코 완수해야 된다.”고 독려했다. (9면에 계속)



1. 성초전수식을 하고 있는 문연아 여성연합 세계회장  
2. 특강하고 있는 유경석 회장  
3. 특강하고 있는 김영휘 천의원장  
4. 세계본부 선교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조성일 사무총장  
5. 천일국 지도자 특별총회 참석자들

## 참부모와 천일국 실제화의 비전

송용천 일본총회장은 ‘천일국 실제화를 위한 비전2020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송 일본총회장은 “기원절과 천일국 실제시대를 맞이한 이후 통일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는 보다 분명히 정해졌다.”면서 “통일운동은 단순히 개인과 가정, 종족을 넘어 국가와 세계에 구체적으로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천일국 건설을 위한 사회적 기반, 나아가 국가복귀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라는 주제에 관해서 앤드류 윌슨 박사와 테일러 핸드릭스 박사 그리고 윤영호 박사 등이 강연했다. 윌슨 교수는 ‘예수님의 미완결 사명 완성, 인류의 구원, 하나님 왕국(천일국)의 기반 구축, 하나님의 해방이라는 참부모로서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참어머님의 노력이 필수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신 참어머님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핸드릭스 박사는 “성서적 가르침에 따르면 메시아는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현현해서 어머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분, 즉 실제 성신을 만나 참부모의 자리를 복귀하게 된다.”면서 “참어머님의 위상과 권위를 확실히 알고 참아버님의 유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영호 박사는 “참남성(참아버지)과 참여성(참어

머니)을 지칭하는 ‘참부모’라는 사상은 복귀섭리사의 핵심개념이며, ‘참부모’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남성과 여성을 각각 강조했던 서양(유목문화: ‘하늘승배’)과 동양(농경문화: ‘땅 승배’)의 문명사와 종교사를 통해 재조명할 때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찬양봉헌·화합봉헌·정성봉헌

둘째 날 저녁에는 ‘찬양으로 하나 된 우리’라는 주제로 찬양봉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천심성가대의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하모니는 참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참석자의 심정을 뜨겁게 달구고 마음 깊이 감동을 전해 주었다.

정원주 수석보좌관은 ‘그리움의 서신’을 낭독하며 참아버님을 모시고 섭리의 최일선에서 아버님의 참사랑과 참심정을 느꼈던 시절을 회상하며, 천상에 계신 참아버님께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 천일국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겠다.’는 심정의 보고를 하였다. 또한 문상필 한국CARP 회장은 간절한 그리움을 담아 ‘아버지의 기도’를 낭독하며 참아버님의 유업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전 세계 섭리현장에서 Vision 2020 승리를 향해 달려가던 천일국 지도자들은 ‘찬양봉헌’을 통해 꿈에 그리던 신앙의 조국에서 참부모님의 심정을 느끼고 찬양을 통해 천일국의 심정문화를 체휼하며 하늘에 기쁨과 영

광을 봉헌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에는 화합봉헌을 위한 ‘화합통일 체육대회’가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진행됐다. 체육대회는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명랑운동회로 시작됐다. 점심식사 후 특별총회 전체 참석자들은 참부모님의 부르심에 따라 천정궁으로 이동해 문선진 세계회장을 중심으로 웃놀이를 하며 화동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정성봉헌’을 위한 촛불기도회가 진행됐다. 참아버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참어머님께서 정성을 들이실 때 사용하셨던 성초를 문연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이 전 세계 특명총사와 대륙회장에게 전수해 주었다. 이날 전수한 성초에는 감사, 참회, 사명, 평화, 심정, 천상 조상해원과 지상 후손 완성, 희망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천일국 지도자들은 전수받은 촛불을 들고 세상에 참사랑의 빛을 밝히며 신종족메시아의 사명과 Vision 2020 승리를 위해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 섭리적 경륜에 따른 실제 천일국 기반 확대

넷째 날 오전에는 세계본부 조성일 사무총장이 출정식을 앞두고 세계본부 전략발표를 했다. 조 사무총장은 먼저 세계본부 조직에 관한 최근 천지인참부모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가 기획조정실 산하 행정지원국, 선교지원국, 교육지원국으로

개편되었음을 밝혔다. 앞으로 세계본부 기획조정실은 선교기획, 인재양성기획, 연구기획, 경영기획, 특별기획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성일 사무총장은 세계 주요 종교의 현황을 보고한 뒤, “현재 통일가의 교세로는 2020년까지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세계종교로 편입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다 빠르게 전하기 위한 세계종교 기반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세계종교 위상 정립을 위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에 가입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성일 사무총장은 성화브랜딩과 뉴미디어 선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세계본부와 천공원이 TFT를 구성하여 뉴미디어 선교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조 사무총장은 천일국연구원, 천일국 인재개발원, 세계본부 경영전략수립 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기획·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공유했다.

한편, 특별총회 기간 중 아침훈독회 시간에는 선학평화상 보고, 대륙보고, 천일국 5원 및 헌법, 천의원 보고 등이 진행됐다. 대륙보고에서는 박노희 특명총사가 유럽대륙 활동 보고를, 용정식 특명총사가 아시아대륙 활동보고를 했다. <기사제공: 기획홍보국>



1. 대륙보고를 하고 있는 박노희 유럽특명총사  
2. 대륙보고를 하고 있는 용정식 아시아대륙 특명총사  
3. 특강을 하고 있는 앤드류 윌슨 박사  
4. 특강을 하고 있는 테일러 핸드릭스 박사

5.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천일국지도자들  
6. 찬양봉헌을 인도하고 있는 천심성가대  
7. 웃놀이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  
8. 화합통일 체육대회 진행 장면

# 통일그룹,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 보고회 개최

##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등 600여 명 참석



1.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윤기 통일그룹 이사장  
2. 천주성화 3주년 활동소개를 하고 있는 유경석 한국회장  
3. 추모사를 하고 있는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4. 추모사를 하고 있는 정태익 한국외교협회장

5. 승리제의를 하고 있는 황선조 선문대 총장  
6. 언론보고를 하고 있는 안호열 대외협력본부장  
7. 축가를 부르고 있는 천북교회 천심성가대  
8. 천주성화 3주년 기념 보고회 전경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하 통일그룹) 주관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 보고회’가 천력 7월 22일(양 9.4)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태익 한국외교협회장을 비롯하여 통일그룹 계열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 등 기관기업체로부터 초청받은 600여 명의 VIP들이 참석해 참부모님의 참사랑과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과 업적을 기렸다.

### 참아버님 생애업적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 전해

최윤기 통일그룹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금번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선학평화상, 피스로드 2015 세계대장정, WORLD SUMMIT 2015 등의 기념사업을 통해 문선명 총재의 업적이 재조명 되고 재평가 되었다.”면서 “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보고회 시간이 마련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문선명 총재님은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의 지름길’이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밝힌 뒤, “총재님은 우리 가슴속에 늘 함께 살아계신다. 총재님의 뜻을 받들어 비무장지대에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도 문 총재님의 유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모사에 갈음했다.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은 추모사에서 “문선명 총재님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종교지도자이시고 평화운동에 일생을 바치신 분이시다. 문 총재님은 평화세계 건설을 위해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하셨고 한일터널과 베링해협을 중심한 국제평화고속도로 비전을 담아 피스로드가 출범되었다. 저는 세계평화터널재단과 인연을 맺은 이후 문 총재님의 평화비전을 알게 되었고, 그 원대한 이상은 저의 가슴을 뛰게 했다. 문 총재님이 너무 그립다.”라며 참아버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의 심정을 전했다.

유경석 가정연합 한국회장은 “문선명 총재님 천주성화 3주년 기념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린다. 한학자 총재께서도 오늘 행사 개최의 소식을 듣고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셨으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해 달라’고 하셨다”며 VIP들을 환영했다.

이어 유 회장은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사업 중 메인 기념식 행사,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2015 피스로드 세계 종주완료식 등 주요행사와 각 섭리기관에서 진행한 행사들을 자세하게 보고한 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참아버님의 생애’를 참석자들에게 증거했다.

### 천주성화 3주년 언론보도에 큰 관심

안호열 본부장은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 언론보도 현황을 보고하였다. 안 본부장이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을 비롯하여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피스로드 2015 등 통일가가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행사에 대한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공유하자,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기념 보고회는 안호열 통일그룹 대외협력본부장의 사회로 개최선언, 묵념, 천주성화 3주년 영상시청, 찬양, 최윤기 통일그룹 이사장의 인사말,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추모사,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의 추모사, 유경석 가정연합 한국회장의 천주성화 3주년 활동소개, 안호열 본부장의 언론보도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의 승리제의로 만찬이 시작됐다.

행사에 참석한 VIP들은 참부모님께서 참사랑을 실천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걸어오신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으며, 천심합창단이 아름다운 선율로 ‘일어나라’와 참아버님께서 즐겨 부르던 ‘사랑해’, ‘홀로아리랑’, ‘엄마야 누나야’ 등을 메들리로 불러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참아버님의 천주성화 3주년인 2015년은 시묘 3년 정성의 마지막 해로 탈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추모메시지를,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은 추모화환을 보내와 남북통일을 위한 참부모님의 지난 업적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기사제공: 통일그룹 대외협력본부)

# 천주성화 3주년... 한국교회, 참회와 거듭남 속에 비전 2020 승리 다짐!

사랑나눔연합예배, 전국 4개 권역 거행 (수도권, 천력 7월 30일 서울올림픽펜싱경기장)  
새식구환영축제, 천력 8월 7~8일 수도·중부권, 영·호남권, 청년학생 대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사랑나눔연합예배와 새식구환영축제를 통해 참회와 성찰, 소명에 대한 결의와 부흥의 시간을 마련한다.

‘피스로드 2015 세계대장정’을 시작으로 지난 3개월 간 거행된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들은 ‘평화로 세상을 연결하자’라는 주제로 천력 7월 17일(양 8.30)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된 기념식을 정점으로 한 획을 그었다.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을 기준으로 전반기 행사들이 평화이상세계 건설을 향한 참아버님의 업적에 중심을 두었다면, 후반기는 축복가정들의 신앙적 참회와 뜻을 향한 성찰, 그리고 신종족메시아로서의 소명 완수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는 기간으로 설정된다.

## 사랑나눔 연합예배 사랑나눔축제 연인원 12만 명 참석

‘사랑나눔 연합예배’(이하 연합예배)는 오는 천력 7월 30일(양 9.12) 오전 10시 30분 서울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수도권 교회들을 중심으로 개최되며, 이어서 영남권(양 10.4 부산 백스코컨벤션홀), 중부권(양 10.25, 아산 이순신체육관), 호남권(양 11.1,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국협회는 연인원 3만여 명이 참석하게 될 금번 연합예배를 통해 참부모님의 사랑과 평화의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성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종교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한편, 참회와 용서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덧붙여 전국 22개 교구가 참여하는 금번 연합예배에서는 각 권역마다 200여 명의 연합 합창단이 구성돼 참부모님을 향한 존귀와 영광, 축복가정 서로를 향한 회개와 마음을 여는 찬양을 한다. 또한 역대 협회장들의 회고담을 통해 참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자리와 1세와 2세가 하나 되어 천일국 실현의 꿈을 그려나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사랑나눔축제가 축복가정과 식구, 평화대사, 새식구, 지역주민 등 연인원 9만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교구와 교회에서 8월과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천력 7월 10일(양 8.23) 성일을 맞아 충북교구 청주교회, 광주교구 광주교회, 서울동부교구 광진교회, 경기남부교구 평택교회와 군포교회, 해양교



서울동부교구 광진교회 사랑나눔축제



여성연합 광진지부의 장학금 전달식



자매결연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벨라루스 2세와 군포교회 성화학생들



청주교회 사랑나눔축제 전경

구 해양교회 등에서 사랑나눔축제가 진행됐다.

이날 청주교회는 사랑나눔축제를 통해 새터민 25가정과 다문화 15가정에 각 가정에 10kg씩 총 400kg의 쌀을 전달했다. 또한 평택교회는 ‘사랑나눔축제예배 및 제6회 찬양예배’를 참부모님의 전통과 심정을 상속받기 위한 열린예배 형식으로 진행했다. 군포교회에서는 사랑나눔축제 예배 후 벨라루스 2세 성화학생들과 군포교회 성화학생 간의 자매결연식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광진교회는 ‘밥이 사랑이다’는 주제로 사랑의 쌀 나눔의 일환으로 떡 12말을 이웃과 나누었고, 세계평화여성연합 광진지부는 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새식구 환영축제, 교회 정착의 계기 마련

‘새식구 환영축제’가 오는 천력 8월 7일부터 8일까지(양 9.19~20) ‘심정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만남! 우리는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새식구들이 교

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4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새식구 환영축제는 각 지역의 새식구와 믿음의 부모들을 초청한 가운데 천주청평수련원 친화교육관 B관(수도권·중부권 공동), 여수 청해연수원(호남권), 성주 가야산 관광호텔(영남권)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환영축제는 권역별로 진행되지만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더불어 환영 이벤트, 인생특강(‘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성지순례(자연을 통해 만나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심정화동회가 펼쳐지고, 둘째 날에는 혼독회, 정심원 기도(수도권·중부권), 행복특강(호남권, 영남권), 그룹별 모임(가족 행복 보물지도 그리기), 새생명축제예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을 맞은 추계 제반 행사들을 통해 한국 가정연합은 Vision 2020 섭리 승리를 향한 내외환경 기반 정착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한편, 향후 4년간 이어갈 섭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전도교육국>

# 가정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이상가정 코칭 강사 양성' 주제

문연아 세계회장 '축복가정의 본질' 설명, 13개 대륙 90여 명 참석

'가정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이 천력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 8.31~9.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주최, 한국·일본협회 가정국 공동주관으로 전 세계 13개 대륙의 가정국장 및 가정사역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청평수련원 친화교육관 B관에서 개최됐다.

'이상가정 코칭 강사 양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행사는 축복가정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현장 가정사역자 역량 강화, 각 현장에 맞는 이상가정 프로그램의 개발 능력향상, 국제축복 행정 절차 및 양식의 세계적 표준 설정 등을 위해 기획·진행됐다.

##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 계획 돋보여

첫날, 오전 9시에 진행된 개회식은 세계본부 용진현 교육국장 과 한국협회 홍성복 가정국장을 중심으로 대륙별 참석자에 대한 소개와 전체 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용진현 국장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참석자의 성향을 과학적으로 체크하고, 통계를 내어 자신과 상대의 모습과 유형을 알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밝힌 뒤, "금번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대에게 다가가 대화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보다 지혜롭게 가정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프로그램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진 '내 마음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간에는 신영숙 나우리 가족상담센터 원장이 동영상, 축복만족도 검사지, 자존감 검사지, 활동지 등을 활용하여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원장은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할 축복가정들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부부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면서 "나"를 알고 상대방의 개성과 성품을 존중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선문대학교 최병일 교수는 '나와 가족이해'라는 주제로 자아발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고 가정을 관리하는 법을 강의했고, 천복궁교회 양창수 목사는 '축복가정의 정체성'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통일교회의 구원관은 참가정 완성'이며 '부부의 사랑은 천일국 창건의 모체'라고 강조했다.

## 하늘부모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가정 되어야

둘째 날에는 최병일 교수의 '사랑통장 만들기', 양창식 목사의 '부부의 절대성', 신영숙 원장의 '부부의 마음소통'과 '대화의 기법' 그리고 '행복한 이상가정을 위한 가족설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병일 교수는 관계의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창수 목사는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본 절대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신영숙 원장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오해와 오류를 인식하고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연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참부모님을 중심한 전통과 혈통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하늘부모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분은 역사상 참부모님밖에 없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단지 남자와 여자의 행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항상 모시며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참어머님께서 누구를 만나실 때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보실 때, 음식을 대하실 때에도 하늘부모님과 수고한 손길을 생각하신다. 단순히 어떠한 현상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을 놓고 하늘과 연결시키신다."며 참어머님을 증거했다.

끝으로 "가족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구성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돕고 이해하고 지원해 채워주게 되어 있다. 세계에서 온 가정사역자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현장에서 축복가정과 식구들을 살피며 수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번 행사에 참가한 각 나라의 가정국장과 가정사역자들은 "여러 강사들의 교육을 통해 '나'를 보다 깊이 알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배워 기뻐다.", "부부 간의 관계나 가정적 어려움도 '나'의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화하고 소통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뜻 깊었다.", "문연아 세계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감사드립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기사제공: 가정국)



1. 폐회식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연아 세계회장  
 2. 개회식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진현 세계본부 국장  
 3. 말씀하고 있는 홍성복 한국협회 가정국장  
 4. 세계에서 온 가정국장과 가정사역자들  
 5. 가정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후 가진 단체기념촬영

# 2015 천주성화 3주년 교회성장 컨퍼런스 개최

## 한국교회 성장 프로그램 세계교회가 주목, 해외 목회자 체험공유

섭리의 종주국 한국교회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온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천력 7월 22일(양 9.4) 개최된 '교회성장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에서 전세계 목회자들에게 소개됐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유경석 한국회장은 Vision 2020 승리와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 최근 3년간 추진해온 3대혁신(조직·역량·환경) 중 역량부문을 제고시킨 핵심 프로그램을 천일국 특사 및 해외 목회자들이 체험·공유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마련토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도교육국(신인선 국장)은 천력 7월 22일부터 24일(양 9.4~6)까지 천주청평수련원 친화교육관(B관)에 교회성장 컨퍼런스를 개설했다. 천일국 특사와 선교사 그리고 해외 목회자를 중심한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매일 2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 현장중심의 생생한 사례들을 직접 확인·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첫날 오후 1시 30분 열린 개회식은 전도교육국 이준 차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경배, 천일국가 제창, 송인영 대구교구장의 보고기도, 신인선 국장의 말씀 및 축도,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신인선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세주·메시아·평화

의 왕으로 오신 참부모님을 세상 앞에 제대로 알리고, 가정연합 식구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입각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전제한 후, "2박3일간의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계 목회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서 개발, 검증, 활용되고 있는 최우수 프로그램들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기간을 통해 실제 천일국 창건을 위한 심도 있는 나눔과 공감의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도교육국은 2박3일 동안 '전도·양육·축복·사역' 등 신앙성장 체계에 따른 6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해 해외에서 온 천일국 지도자들이 각 선교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컨퍼런스 첫날에는 '전도센터 시스템'(대구교구)과 '전도정착 및 양육'(본부교구)에 관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CIG전도학교'(경기북부교구)와 '혼독가정교회'(울산교회) 등이, 셋째 날에는 '천일국 전도시스템'(충남교구)와 '신종족메시아 리더스쿨'(선문대학교 길영환 교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전도교육국〉



2015 천주성화 3주년 교회성장컨퍼런스 개회식 후 가진 단체기념촬영

# 2015 천주성화 3주년 세계대표가정 성지순례

## 세계·한국대표 각 22가정, 참부모님 심정상속과 사명완수 다짐

'2015 천주성화 3주년 세계대표가정 성지순례'가 천력 7월 22일부터 24일까지(양 9.4~6) '참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범넛골에서 천정궁까지'라는 제하로 한국대표 22가정, 세계대표 22가정 등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금번 성지순례에 참가한 한국대표 22가정은 예배 참석과 헌금생활을 비롯하여 신앙생활의 본이 되며 최근 3년간 전도 3명, 축복 3가정 이상을 한 축복가정 중에서 각 교구 1가정씩 선발되었고, 세계대표 22가정은 대륙본부별 인원을 배정하여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축복가정 중에 선발하게 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한국협회가 주관하는 성지순례는 참부모님의 섭리적 발자취를 따라 대표가정들이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완수를 다짐하기 위한 장으로 기획됐다. 더불어 부부 참석을 통해 함께 신앙여행을 하도록 하여 평소보다 심정적으로 깊이 대화하며 성숙한 신앙의 길을 동행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본격적인 순례 노정에 앞서 제1조는 부산교구 부산교회, 제2조는 해양교구 여수교회에서 개회식을 가졌다. 이현영 가정연합 부회장은 부산교회 개회식 말씀에서 "천주성화 3주

년이 지났다. 참아버님께서 주신 비전과 이상은 우리의 책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기도할 때에는 참아버님의 유업을 계승하여 얼마만큼 실천했는가를 보고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오늘 성지순례다."라며 성지순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방승만 원장은 청해연수원 개회식 말씀에서 "청해연수원과 여수 일대는 참부모님께서 해양섭리의 총체적 완성을 위해 23시간 40분 동안 혼독 정성을 들이시고, 거친 파도와 싸우시며 낚시정성을 들이셨던 역사적 현장이다."라고 소개한 뒤, "세계대표가정들이 이곳에서 인류를 향한 참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체휼하고 실제 천일국 시대 참된 효자·효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지순례 주관부서인 한국협회 가정국은 전국 주요 성지 9곳을 2박3일의 일정과 순례 취지에 맞게 2개의 코스로 나누어 각 성지순례 팀들이 6개의 성지를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제1조(세계대표가정)는 부산 범넛골을 시작으로 문경새재-서울 흑석동-청파동 전 본부교회-천주청평수련원-천정궁-야목교회, △제2조(한국대표가정)는 여수 청해가든을 시작으로 공주 갑사-서울 흑석동-청파동 전 본부교회-천주청평수련원-천정궁-파주 원전을 순례하게 된다.☺

〈기사제공: 가정국〉



1. 부산교회에서 개회식 후 가진 단체 기념촬영
2. 부산 범넛골 제1성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제1조 성지순례단
3. 청해연수원에서 기념촬영하는 제2조 성지순례단